

## ◆ 북미

- 캐나다 게리인회, 고용보험의 문제점 지적
- 모기지 관련 부실우려로 인한 채권보험사들의 주가 폭락
- 미국 보험사 State Farm 집단소송에 직면

## ◆ 유럽

- Prudential,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 재편
- EU, 금융시장 감독규제 시스템 단계적 접근
- ABI, 영국정부에 25년 홍수전략 요구

## ◆ 일본

- 생보사들, 보험금 미지급 금액 자체 조사결과 보고
- 금융청, 보험회사의 국내 주식운용비율 철폐 검토
- 다이이치생명, 2010년 중 주식회사 전환 계획 확정

## ◆ 중국

- 미수령 생존보험금 이자까지 수령
- 3/4분기 보험시장 발전현황 발표
- 2007년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판매열기 고조

##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캐나다 계리인회, 고용보험의 문제점 지적

- 캐나다 계리인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는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 계리인회는 고용보험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분리되면 보험료의 산출을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 역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사용되는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잉여금(surplus)이 쌓이고 있으며, 그 잉여금도 대부분 세입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그 금액은 무려 54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함.
- 또한 현재의 보험료 체계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잉여금이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보고서의 저자인 Michael Hale에 따르면, 지급준비금은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보험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적당량은 많아야 150억 캐나다 달러 정도라고 지적함.
- 계리사회는 현재의 보험료가 일 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취업률 변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외부기관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
- 캐나다중소기업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은 이번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 연합의 임원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는 세금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회사가 고용보험료의 6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데에도 장애가 된다고 이야기함.

(The Canadian Press, 12/4)

## □ 모기지 관련 부실우려로 인한 채권보험사들의 주가 폭락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 상위 채권 보험사인 MBIA에 대해 모기지 관련 잠재 손실로 인한 부정적 의견을 발표한 후 채권보험사(bond insurer)들의 주가가 폭락함.
  - 무디스는 MBIA의 모기지 유통화 증권(resident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RMBS)포트폴리오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함.
  - 무디스의 발표 후 MBIA 주가는 20%가량 하락하면서 장중 7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라이벌 채권보험사인 Ambac사의 주가도 11% 하락함.
  - 신용평가사인 Egan-Jones는 MBIA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면서 향후 2분기 동안 신용 충격이 더 발생할 것이며 자금조달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함.
- 채권보험사는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하는 경우 적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조 3천억 달러에 달함.
  - 채권보험산업의 리더인 MBIA와 Ambac의 최근 주가 하락은 RMBS와 서브프라임 채권을 담보로 하는 부채담보부증권(CDOs)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하기 때문임.
  -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경쟁력이 저하되어 이들의 사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들 보험사는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자본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무디스는 채권보험사들이 재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이야기 함.
  - 새로운 자본금의 조달도 생각될 수 있으나 그것은 또 다른 집행 리스크(execution risk)를 낳고 신용평가사들은 집행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임.

(CNN Money, 12/5)

## □ 미국 보험사 **State Farm** 집단소송에 직면

- o State Farm의 보험계약자들은 네브리스카 고등법원에 대해 State Farm에 대한 소송을 재개할 것을 요구함.
  - 그들은 State Farm의 자동차 보험이 약속한 것과 같은 의료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보험계약자 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1990년 이후 State Farm으로부터 부적절하게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한 2000여 명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State Farm이 계약자들의 선택에 의해 병원 또는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과 달리 특정 의료기관만을 인정하는 “managed care”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 보험계약자들은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사를 네브라스카주 사기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위반으로 고소함.
- o State Farm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2006년 6월 Douglas County judge는 회사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State Farm측 변호사는 State Farm이 판매한 자동차 보험에는 모든 의료비 지출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자동차 사고에 의해 발생한 공정하고 정당한 청구에 있어서만 보상한다고 반박함.
  - 또한 이번 소송을 주도한 Lynch 부부의 경우 6개월 보장에 9.6달러 밖에 되지 않는 의료 커버리지에 가입했으며 그것이 폭 넓은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함.
  - 만약 소송이 재개되고 공판이 예정될 경우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임.

*(Houston Chronicle, 12/5)*

##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 Prudential,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 재편

- 영국에서 2번째로 큰 보험회사인 프루덴셜은 지난 수요일(11/28)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약 3천명의 직원을 영국의 아웃소싱 회사인 Capita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인력재편 대상직원은 영국내 직원 1,750명과 뭄바이에 위치한 프루덴셜의 해외사업부문 내 직원 1,250명임.
- 프루덴셜은 전략적 아웃소싱 파트너로 Capita를 선정했는데, 계약금액은 777백만 유로에 15년의 계약기간 동안 연간납입액 6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만기생명보험 및 연금의 관리를 맡게 되는 조건임.
  - 동 거래는 프루덴셜의 사업분야와 자산 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써, 뭄바이 프루덴셜의 해외사업부문인 PPMS를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PPMS에는 약 1,800명의 직원이 있음.
- 프루덴셜의 회장인 Nick Prettejohn은 성명을 통해 Capita와의 협약은 우리의 영국내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Capita에 위탁되는 모든 임직원은 현재의 고용 조건이 유지될 것이며, Capita와의 15년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을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함.
  - 프루덴셜은 지난해 순익이 전년보다 5.1% 감소한 4억2500만파운드(주당 17.5펜스)를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인력구조 재편을 통해 2010년까지 195백만 파운드(273백만 유로, 미화 402백만 달러)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11/28)

## □ EU, 금융시장 감독규제 시스템 단계적 접근

- EU가 역내 금융감독 시스템 단일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면서 단계별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재무장관 알리스테어 달링은 4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단일화된 범유럽 금융시장 감독규제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동 논의는 EU 회원국 금융감독기관간 공통기준을 만들자는 이탈리아의 제안에서 비롯됨.
  - 현행 시스템(Lamfalussy 시스템 : 2001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4년 은행 및 보험부문까지 확장)의 재검토 논의 진행과 관련하여,
  -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네덜란드로부터 공통 기준 설정에 대한 지지를 받았으나,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의 지원을 받은 영국 등의 입장이 관철됨.
- 영국 재무성은 현행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은 지지하나 전반적인 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각국 기관간 협력강화를 통해 회원국간 금융감독 문제를 다루려는 결정은 실용적인 조치라고 평가함.
  - 달링 장관은 단일화된 금융감독 모델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EU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이러한 모델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부언함.
- EU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4개월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의 여파가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금융감독 구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행자협회의 CEO인 안젤라 나이트는 금융규제자들간의 밀접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EU에서의 금융서비스규제는 개혁이 아닌 발전이 필요하며, 정책개발은 금융시장의 이벤트에 따른 반응의 연속이 아닌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The Independent, 12/5)

## □ ABI, 영국정부에 25년 홍수전략 요구

- ABI(영국보험자협회)는 “2007 여름 홍수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차원의 25년 홍수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동 보고서는 홍수위험 절감을 목표로 홍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단독의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건물 구축 등 신개발 계획에 대한 적정 통제를 가능케하는 엄격한 플래닝을 요청함.
  - 날씨변화와 강, 해안,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홍수위험을 반영하여 투자프로그램을 착수시킬 것을 주장함.
- 또한,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기록된 지난 여름과 같은 재해는 보험회사들이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보험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정부가 더 많은 방어 비용을 소요할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함.
  - 홍수 피해지역이었던 요크셔, 험버사이드, 글로스터셔, 워스터셔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 이상의 응답자가 미래에 같은 강도의 홍수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액은 30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영국의 몇몇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였음.
  - 홍수 피해에서 얻은 교훈으로 더 큰 투자와 국가차원의 협력, 더 나은 토지이용 계획을 근거로 한 장기적인 전략이 긴급하다는 것을 한층 강조함.
- 한편, 지난 10월 영국 환경부는 홍수관리 예산을 2010/11년 8억 파운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천명한 바 있으나, ABI는 이는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요청했던 금액보다도 적은 것이라고 밝혔음.
  -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하여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홍수와 연안침식 위험과 관련 소요된 비용이 거의 2배나 늘었으며, 국가는 날씨변화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 대응함.

(Reuters, 12/4)

##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 생보사들, 보험금 미지급 금액 자체 조사결과 보고

- 13개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금 부당 미지급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청에 보고하였음.
- 2001년부터 5년간 보험금 미지급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38개 회사이며, 미지급 건수가 약 131만건, 미지급 금액이 964억엔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10월 5일 1차 자체조사 결과인 11만건, 54억엔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임.
- 각 생명보험회사의 자체적인 조사는 이것으로 모두 종료되었으며 금융청은 생보사들이 보고한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 등을 고려하면서 행정 처분을 검토할 계획임.
- 이 날 결과를 발표한 것은, 미츠이생명보험, 야마토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자회사 5개사,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6사임.
- 그 중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은 미지급 건수가 약 12만건, 금액이 52억엔으로 10월 1차 조사 때보다 약 2만건, 2억엔 정도 늘어났고 이는 계약이 실효했을 경우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임.
- 외국계 생보사의 미지급액도 AIG스타생명보험이 46억엔, AIG에디슨생명보험이 14억엔으로 확대됨.
- 생명보험회사의 미지급은 2005년 표면화된 이후에도 모집단계에서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미지급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이 때문에 금융청은 2007년 2월 전체 38개 생보사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당초의 기한인 4월을 넘겨 9월말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음.

(FujiSankei Business i., 12/8)

## □ 금융청, 보험회사의 국내 주식운용비율 철폐 검토

-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총자산의 3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국내 주식투자 비율의 철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유화가 자산운용수익률을 호전시켜 보험료 인하 등 계약자에게도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반면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금융청은 자산운용규제완화에 대한 안건을 금융심의회에 제안하고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08년에 보험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일본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운용 규제가 설치되고 있음.
  - 현재 일본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 투자한도는 국내 주식과 외화 기준 자산의 보유는 총자산의 30%까지, 부동산은 20%까지로 정해져 있음.
  - 그러나, 일률적인 규제는 신속한 자산운용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익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강화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음.
  - 더욱이 유력한 기관투자가인 보험회사의 국내 주식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강하고, 정부 및 여당 내에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다만, 리스크 관리 능력은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금융청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또 다른 방안은 재무가 건전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높은 보험회사에 한하여 규제를 폐지하는 안임.

(마이니치신문, 12/5일)

## □ 다이이치생명, 2010년 중 주식회사 전환 계획 확정

-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지난 6일 2010년 중 현재의 상호회사 형태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증권거래소의 상장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대기업 생명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상장하는 것은 다이이치생명이 처음이며 자금조달의 유연화와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보험회사의 M&A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주식회사 전환의 장점은 증자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유연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이이치생명은 그 동안 방카슈랑스 전문 자회사의 설립과 베트남의 생명보험회사 인수 등의 사업 확대전략을 추진해 왔음.
- 주식회사 전환 후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이러한 국내외 시장 확대전략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이이치생명이 주식회사 전환을 선택한 배경은 생명보험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임.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주력상품인 사망보장보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도 감소하거나 과거와 같이 5% 이상의 실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은 향후 성장 전망이 밝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일본내 시장에서 M&A 등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경영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만 설립이 인정되고 있는 회사 형태이며, 대부분의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이미 야마토(大和)생명보험이나 터이요오(太陽)생명보험, 미츠이(三井)생명보험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바 있으며 매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보험은 내년 3월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할 계획임.
- 니혼(日本)생명보험과 스미토모(住友)생명보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다이이치생명의 주식회사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산케이신문, 12/7)

##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 미수령 생존보험금 이자까지 수령

- 핑안생명(平安人壽) 쓰촨(四川)분공사는 오는 12월 26일부터 생존보험금에 이자가 발생하는 보험상품을 정식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에서는 고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생존보험금에도 이자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임.
  - 생존보험금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이 잊고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복리계산하게 되는데, 핑안생명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까지 판매된 상품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함.
- 현재 배당형, 만능형, 연금형 등의 생명보험 상품은 대부분 원금 혹은 원금+이자 반환형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비, 연금보험금,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게 됨.
  - 일부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발생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수령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이러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자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해 왔음.
- 2007년 10월 말 현재, 핑안생명에만 약 26억 위안의 미수령 생존보험금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쓰촨성 관할 지역 내에만 약 2만 2천 건에 3,600만 위안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쓰촨성 내 각급 보험회사의 미수령 보험금을 합하면 약 2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처럼 미수령 보험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핑안생명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서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중국증권보, 11/30)

## □ 3/4분기 보험시장 발전현황 발표

- 중국 보감위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3/4분기 중국 보험시장 개혁발전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보감위 주석 비서 원리(袁力)는 "금년 들어 중국 보험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밝힘.
- 수입보험료는 금년 10월 말까지 총 8,835억 위안을 거수하였으며(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 이중 생명보험은 3,67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은 1,6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은 309억 위안(1.4% 증가), 상해보험은 165억 위안(17.5% 증가)을 각각 거수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1,798억 위안(63.6% 증가)로 나타났음.
  - 또한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 총액은 2조 9천억 위안에 이르면서 연초 대비 7,767억 위안이 증가하였음.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운용가능 자산은 총 2조 6,2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운용 현황을 들여다보면, 은행예금 7,332억 위안(27.9%), 채권 1조 732억 위안(40.9%), 주식 및 펀드 6,830억 위안(26.0%), 기타 1,381억 위안(5.2%)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보감위는 국유보험 회사의 개혁작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중국생명(中國人壽)과 핑안보험(平安保險)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등록자본금 362억 위안의 중국재보험(그룹)이 설립되는 등 각급 보험회사의 자본력이 강화되고 지불능력이 제고되는 등의 '구조적인 선순환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신량재정, 11/30)

## □ 2007년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판매열기 고조

- 2007년은 중국에서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좋은 성과를 본 한해로,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내 놓은 수십 종의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을 입맛에 맞게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지난 9월 말 현재, 상하이(上海) 보험시장에는 평안생명(平安人壽), 타이강생명(泰康人壽), AIA, 하이강생명(海康人壽)을 비롯한 15개 생명보험 회사가 새로운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이들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종류만 23개이며 투자연동형 가입계좌 수도 50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하이 지역의 경우 금년 들어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수입보험료로 약 37억 위안을 거두어들이면서 신상품 판매에 나선 보험회사 대부분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목할 만한 사실은 상품 판매가 대부분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며 이는 낮은 금리를 견디다 못한 소비자들이 투자처를 다양화한 데서 기인함.
-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의 판매열기가 달아오른 이유를,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가 10% 내외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주민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사실을 꼽고 있음.
  - 은행금리는 너무 낮은 반면 주식시장에 직접투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보장과 투자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보험회사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임.

(중국보험보, 12/5)

## 【 Financial Key Indicators 】

| 구분        |             | 06년말      | 07.11.23(금) | 07.11.30(금) | 07.12.7(금) | 전주대비    |
|-----------|-------------|-----------|-------------|-------------|------------|---------|
| 금리<br>(%) | 韓 국고채(3년)   | 4.92      | 5.62        | 5.77        | 6.11       | +0.34   |
|           | 美 10년국채     | 4.71      | 4.00        | 4.38        | 4.11       | -0.27   |
|           | 英 10년국채     | 4.73      | 4.56        | 4.64        | 4.64       | -       |
|           | 日 10년국채     | 1.68      | 1.42        | 1.48        | 1.58       | +0.10   |
| 주가        | 韓 KOSPI     | 1,434.46  | 1,772.88    | 1,906.00    | 1,934.32   | +1.49%  |
|           | 韓 KOSDAQ    | 606.15    | 700.68      | 741.84      | 747.65     | +0.78%  |
|           | 美 DJIA      | 12,463.15 | 12,980.88   | 13,371.72   | 13,625.58  | +1.90%  |
|           | 美 Nasdaq    | 2,415.29  | 2,596.60    | 2,660.96    | 2,706.16   | +1.70%  |
|           | 英 FTSE      | 6,240.90  | 6,262.10    | 6,432.50    | 6,554.90   | +1.90%  |
|           | 獨 DAX       | 6,596.92  | 7,608.96    | 7,870.52    | 7,994.07   | +1.57%  |
|           | 佛 CAC40     | 5,541.76  | 5,521.17    | 5,670.57    | 5,718.75   | +0.85%  |
|           | 日 Nikkei225 | 17,225.83 | 14,888.77   | 15,680.67   | 15,956.37  | +1.76%  |
|           | 中 상해종합      | 2,675.47  | 5,032.13    | 4,871.77    | 5,091.76   | +4.52%  |
|           | 대만 가권       | 7,823.72  | 8,342.20    | 8,586.40    | 8,722.38   | +1.58%  |
|           | 홍콩항셍        | 19,964.72 | 26,541.09   | 28,643.61   | 28,842.47  | +0.69%  |
| 환율        | 원/달러        | 929.60    | 930.80      | 929.60      | 922.90     | -6.70   |
|           | 원/100엔      | 781.83    | 860.56      | 846.51      | 828.94     | -17.57  |
|           | 엔/달러        | 118.90    | 107.93      | 110.82      | 111.33     | +0.51   |
|           | 달러/유로       | 1.3148    | 1.4804      | 1.4759      | 1.4641     | -0.0118 |
|           | 위안/달러       | 7.8135    | 7.4120      | 7.3965      | 7.4135     | +0.0170 |